

The Effect of Narrative Reporting on Stigmatization during the MERS Incident

- Focusing on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Cultural Bias, Social Capital and Message Responses -

Yung Wook Kim⁺, Seung Kyung Ham

School of Communication and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variables that moderate and mediate the effect of narrative reports on stigmatization using the case of the 2015 MERS incident in Kore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ultural bias moderated the effect of narrative messages on stigmatization. For those who received narrative messages, the higher the egalitarian tendency, the lower the stigmatization. Second, the analyses showed that message responses such as transportation and identific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reporting and stigmatization. Third,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was confirmed such that identification as a message response mediated the interaction effect of narrative reporting and egalitarianism on stigmatization. Fourth, the analyses demonstrated that the higher the egalitarian tendency of a group, the higher the mediating effect of identification and the lower the stigmatization. Finally, the bridging cognitive social capital, which means a general trust with other people, had a negative effect on stigmatization.

Key words: stigmatization, MERS, narratives, cultural bias, social capital

1. 서론

사망자 37명, 격리자 1만6천여 명, 경제 손실 6조 3,627억 원은 2015년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국가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사태가 남긴 결과이다(Doctorsnews, 2015. 11. 17). 그러나 메르스의 결과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상처를 주었다. 자가 격리대상자로 분류되었던 한 의료진이 격리 해제 후 가족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회적 낙인 현상이

나타났다(JTBC, 2015. 6. 26). 메르스에 대한 기피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지 100여일이 지나서도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근처의 상가가 메르스 상가라는 오명 속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KBS, 2015. 11. 17). 이런 낙인화 현상에 대해 의료진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르스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6%가 '자신이 메르스와 관계되었을 때 주위에서 차별 당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48.1%는 '자가 격리자가 옆집에 살고 있으면 대피하겠

⁺ Corresponding author: Yung Wook Kim, Tel. +82-2-3277-2237, e-mail. kimyw@ewha.ac.kr

다라고 답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은 메르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Docdocdoc, 2016. 5. 20). 메르스에 감염되더라도 차별을 두려워해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공유하지 않아 역학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대응도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낙인의 피해는 몇몇의 의료진 가족과 폐업한 상점 몇 곳에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껴안아야 했다. 이와 같은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감염 질병의 낙인화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낙인화(stigmatization)는 위험의 사회 증폭(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에 따라 형성되며, 위험과 관련된 특정 사람, 상품, 장소, 기술 등에 붙여지는 부정적 이미지, 감정적 반응, 사회적 행동 등을 의미한다(Gregory, *et. al.*, 1995). 미디어는 위험을 증폭시키는 대표적인 정보 기제로, 위험사안의 부정적인 속성을 현저화시키면서 낙인화를 일으킨다(Kasperson, *et. al.*, 2001). 메르스 위험 보도와 같은 이슈 기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러티브(narrative)를 갖추고 있다(White, 1997). 내러티브는 인물, 사건 그리고 배경 등을 요소로 해서 도입, 전개 그리고 결말의 구조를 갖춘 스토리이다(Hinyard & Kreuter, 2007). 내러티브는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관심과 감정을 스토리에 집중하는 몰입(transportation)을 경험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Green, 2004), 등장인물의 견해나 감정을 공유하는 동일시(identification)를 경험하면서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킨다(Cohen, 2001).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메시지와 자신의 경험을 관련짓는 자아준거(self-referent) 반응을 보이면서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한다(Dunlop, *et. al.*, 2008). 내러티브 이론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한 내러티브 보도를 접한 수용자들은 스토리에 집중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등장인물과 동일시를 경험하거나, 자신과 메시지 내의 다양한 단서들과 관련성을 상기시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내러티브 반응은 낙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내러티브 보도와 낙인 간의 이면에 숨어있는 인과적 구조를 밝히게 될 것이다.

미디어 보도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든 수용자들에게 동일하지 않다.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은 미디어 보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개인 차이를 설명한다(Jenkins-Smith, 2001). 문화적 편향은 사회적으로 공유한 세계관으로 위계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 등으로 구분되며, 개인들은 문화적 편향에 따라 자연과 기술 그리고 위험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인다(Thompson, *et. al.*, 1990). 예를 들어, 메르스에 대한 위험 보도를 접한 수용자라도 위계주의 편향이 강한지 혹은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지에 따라 메르스 낙인화에 대한 개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미디어 보도와 낙인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 편향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 연구를 통해 미디어 보도 특히 내러티브 보도와 낙인화 관계를 조절하는 문화적 편향의 역할을 분석하고, 낙인화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낙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보도와 수용자의 문화적 편향 등 개인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수준의 변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사람과 관련된 낙인은 위협과 공포 반응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Ogden & Nyblade, 2005), 사회적 규범과 권력, 통제, 도덕성과 관련된 사회화 과정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Alonzo, 1995). 이런 이유로 선행연구들은 감염 질병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의 사회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arker & Aggleton, 2003; Sivram, *et. al.*, 2009). 사회자본의 중심 전제는 구성원 간의 관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집단의 자본이 된다는 것이다(Putnam, 1993). 따라서 메르스 낙인화를 해결함에도 공동체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부정적 측면의 존재이다.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질 집단에 대해서는 적의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Putnam, 2000).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완치된 의료진 가족들을 차별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낙인화 현상은 네트워크의 배타성과 폐쇄성에 기인한 외부 효과의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 자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낙인화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위협의 사회 증폭으로 결과된 낙인에 영향 미치는 개인적 성향, 미디어 반응, 그리고 사회적 자본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검증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미디어 등 다양한 층위에서 메르스 낙인에 대한 영향력을 탐구하는 것은 위협의 사회적 증폭 결과로 발생하는 낙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근거해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제2의 또는 제3의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병 낙인화를 예방하거나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에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보도 내러티브와 낙인화

위험의 사회증폭(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분석틀에 따르면 위험과 위험 사건의 결과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직접적 위험 이상으로 증폭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결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제도에 대한 충격을 일으키고, 다시 2차적 또는 3차 충격이 물결처럼 확산되고 증폭되면서 낙인화를 가져온다(Kasperson, *et. al.*, 2001). 낙인화(stigmatization)는 위험과 관련된 특정 사람, 질병, 장소, 기술 등에 붙여지는 부정적 이미지, 감정적 반응 그리고 사회적 행동 등을 의미한다(Gregory, *et. al.*, 1995). 낙인을 초래하는 위험의 증폭은 정보 전달과 이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보 메커니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가 정보의 양, 정보가 논란되는 정도, 극화(dramatization) 정도, 그

리고 상징적인 함의(connotations)이다(Kasperson, *et. al.*, 1988). 그러나 무엇보다도 낙인화는 미디어의 집중적인 보도로 발생한다(Kasperson, *et. al.*, 2001). 미디어 보도를 통해 감염 질병의 부정적인 속성이 현저하게 부각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낙인화를 일으킨다.

메르스 위협 보도와 같은 사회적 이슈 기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러티브를 갖추고 있다(White, 1997).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을 포함하고 도입, 전개 그리고 결말의 극적인 구조를 갖춘 내러티브(Hinyard & Kreuter, 2007)는 수용자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Gerrig, 1993),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Diekman, *et. al.*, 2000).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지식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동일시라고 한다(Cohen, 2001, 2006). 따라서 동일시는 단순히 등장인물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것뿐 아니라 인지적으로 관점(perspective)을 수용하게 되며 일시적으로 등장인물의 정체감을 갖게 된다. 동일시의 이러한 특성은 내러티브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을 대리 경험하게 함으로써(Oatley, 1999), 등장인물의 관점에 맞게 신념과 행동 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Green, 2006).

내러티브 설득 기제를 설명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몰입(transportation)이 있다. 내러티브에 대한 몰입은 내러티브 속 사건에 주의를 집중하고 공감하고 벌어진 이야기를 상상하는 모든 것을 통합한 개념으로 정의된다(Green & Brock, 2000; Gerrig, 1993). 몰입의 기능은 심리적 시뮬레이션을 촉진시키고, 인지와 감정에 기반한 강한 태도를 형성시켜 내러티브 속의 정보나 주장에 맞게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킨다(Green & Brock, 2000). 쇼핑몰에서 소녀가 이유 없는 공격을 받는 이야기에 몰입된 수용자들은 실제보다 쇼핑몰을 위협한 장소로 생각하거나 사회가 부정의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설득효과는 몰입이 내러티브 메시지에 대한 저항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감소시키기 때문이다(Slater & Rouner, 2002). 내러티브 효과 차원에서 몰입(transportation)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이

를 보인다. 슬레이터와 로우너(Slater & Rouner)는 몰입이 등장인물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감정을 이입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정의는 동일시 개념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반면, 그린과 브룩(Green & Brook)은 몰입을 내러티브 세계에 대한 경험으로 보았는데, 이는 인물에 대한 감정적 인지적 개입인 동일시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영웅을 묘사하는 내러티브에 강한 몰입을 형성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인물과의 동일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모예르-구세(Moyer-Gusé, 2008)는 내러티브 자체에 대한 개입인 몰입을 등장인물과의 동일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일시와 몰입의 차이를 설명했다.

건강 관련한 내러티브 메시지 효과 기제로 주목받는 개념으로 자아준거(self-referent)가 있다(Dunlop, *et. al.*, 2008). 자아준거는 수용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짓는 반응이다(Burnkrant & Unnava, 1995). 몰입과 동일시가 내러티브 메시지 자극에 기인한 직접적 반응이라면, 자아준거 반응(self-referent)은 내러티브 메시지와 자신(self)과 관련성을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Dunlop, *et. al.*, 2008). 위험 사건이 부정적으로 제시된 내러티브 메시지에서 자아준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위험에 대한 태도는 좀 더 부정적이 된다(Burnkrant & Unnava, 1995). 이러한 이유로 건강과 관련된 내러티브 메시지에서 자아준거 반응은 위험 인식을 높이고 건강 행위를 선택하게 만든다(Baumeister, *et. al.*, 2007). 예를 들어 폐암에 걸려 치료받는 환자를 묘사한 내러티브에서 수용자가 자아준거 반응을 보이는 경우 금연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감염질병의 낙인과 문화적 편향

위험의 사회 증폭 모델(Kasperson, *et. al.*, 1988; Kasperson, 1992)에 따르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내러티브 보도를 포함한 미디어의 집중적인 보도가 낙인을 일으킨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위험 신호는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과정과 상호작

용하기 때문에 특정 미디어의 직접적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Joffe & Haarhoff, 2002). 이런 이유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젠킨스-스미스(Jenkins-Smith, 2001)는 낙인화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영향력의 차이를 개인의 문화적 편향에서 찾았다.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은 공유된 가치와 신념으로 정의되는데(Thompson, *et. al.*, 1990), 개인들이 집단에 통합되는 정도인 그룹(Group)과 사회적 규칙에 동화되는 정도인 그리드(Grid)에 따라 위계주의자, 개인주의자, 평등주의자, 운명주의자로 나뉜다(Douglas, 1985). 높은 그룹 특성을 공유하지만 높은 그리드 특성을 갖는 위계주의자와 낮은 그리드 특성을 갖는 평등주의자는 자연과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대조를 보인다(Thompson, *et. al.*, 1990). 위계주의자들은 자연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자연 개발에 따른 위험을 전문가들이 통제할 있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통제를 통해서 자연이 개발되면 개인들의 삶이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 평등주의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을 깨지기 쉬운 존재로 상정하고 자연 개발에 따른 위험이 전문가들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자연 개발을 자연을 착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위계주의와 평등주의의 관점의 차이는 젠킨스-스미스(Jenkins-Smith, 2001)의 낙인화 연구도 검증되었는데, 평등주의자는 핵발전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만, 보수주의자는 평등주의자들보다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평등주의자는 기술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높게 평가한다. 반면 위계주의자는 기술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자연개발과 같이 기술의 위험이 전문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화적 편향은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해준다(Kim, 2014). 위계주의자는 위험과 관련해서 집단의 권위와 규범에 순응하고 이를 통해 집단 구성원 간 조화를 추구한다. 반면 평등주의자는 위험과 관련해

서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규범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위협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하고 이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자연과 위협에 관련한 가치와 신념의 차이는 감염질병 낙인화에 대한 개인 차이를 설명함에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계주의자의 경우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병이 통제될 수 없는 위험 사안으로 인식하고,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비난하는 등 사회적 규범에 동조하는 낙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반면 평등주의자는 메르스 감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구성원의 조화를 깨뜨리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낙인화에 쉽게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는 미디어의 영향력의 차이를 문화적 편향의 차이로 설명한 선행 연구(Jenkins-Smith, 2001)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미디어 유형에 따른 수용자 반응과 문화적 편향 간의 관계로 확장시켜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러티브 메시지는 다양한 수용자 반응을 이끌어낸다(Dunlop, *et. al.*, 2008; Green & Brock, 2000; Green, 2006). 예를 들어 동일시는 등장인물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으로, 내러티브 보도에서 메르스 감염자와 동일시는 그와 동일한 눈높이를 경험함으로써 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비난과 차별에 대한 낙인화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동일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수용자의 지각된 유사성 변인을 제시하고 있는데(Andsager, *et. al.*, 2006), 수용자가 메시지에 등장하는 인물을 자신과 같거나 동료로 지각하는 경우 메시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유사성의 지각을 사회적 관계로 병치시켜서 동일시 효과의 조절작용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문화적 편향은 사회적 관계를 근거로 집단성과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적 제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서열화된 권위 관계를 중시하는 위계주의보다는 평등주의적 관계를 중시하는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이 동일

시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이와 같은 문화적 편향의 상호작용은 자아준거 반응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준거 반응에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병이 통제될 수 없는 위험 사안으로 인식하는 위계주의자들의 경우 메르스 위험을 자신의 위험으로 관련짓는 자아준거 반응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몰입의 경우 내러티브에 대한 집중, 상상 그리고 감정이 집중되는 과정으로서 감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근거로 형성된 문화적 편향의 조절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염질병의 낙인과 사회자본

사람에 대한 낙인은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 사회적 규범의 결과이거나(Link & Phelan, 2001), 지각된 위협과 공포 반응이거나(Ogden & Nyblade, 2005), 또는 권력, 통제, 도덕성과 관련된 사회적 과정이다(Alonzo, 1995). 낙인화된 대표적 감염질병인 에이즈의 경우 치료에 장애가 되는 것은 에이즈를 거부하는 사회적 규범과 낙인과 차별에 대한 공포이다(Chandrasekaran, *et. al.*, 2006). 따라서 감염질병의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은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고, 공동체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과 함께, 감염 예방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다(Parker & Aggleton, 2003).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은 포괄적 측면에서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푸트남(Putnam, 1993)은 사회자본을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라고 보았다. 사회자본은 구조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구분된다(Van Deth, 2008). 구조적 요인은 사회자본의 원천이 되는 네트워크 측면이 해당되며, 인지적 요인은 상호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신뢰와 같은 태도와 가치적 측면이 해당된다(Poortinga, 2006). 사회자본의 중요한 기능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Ismail & Grootaert, 2000). 이를 통해 인식의 폭을 넓히고 관용을 갖게 하면서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Putnam, 2000). 공동체 의식은

에이즈 확산을 감소시켰고(Campbell, *et. al.*, 2002), 비공식적인 조직 참여와 상호호혜성은 에이즈의 낙인 수준을 낮출 수 있다(Sivaram, *et. al.*, 2009).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는 개인적 낙인(personal stigma)을 낮추고, 공동체의 동질성은 속성적 낙인(attributed stigma)을 감소시켰다(Chiu, *et. al.*, 2008).

그러나 사회자본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높은 결속력과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결속형(bonding) 사회자본은 협조, 신뢰, 제도적 효율성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보이지만(Coleman, 1988), 강한 결속력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폐쇄성을 보이면서 파벌주의, 인종주의, 부패와 같은 부정적 결과도 발생시키기도 한다(Putnam, 2000). 강한 결속력의 가족주의 사회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해주지만, 외집단에 대한 폭력, 불신, 불관용, 증오를 낳을 수 있다(Fukuyama, 2001). 이런 이유로 느슨한 연대와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교량형(bridging) 사회자본이 형성하는 광범위한 호혜성이 주목받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결속형과 교량형과 같이 폐쇄적 개방적 네트워크 뿐 아니라 제도와 권력 관계와 같은 수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형성된다. 제도적 권력 등과 같이 수직적 네트워크와 이에 배태된 신뢰와 규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연결형(linking) 사회자본이라고 한다(Szreter & Woolcock, 2004). 연결형 사회자본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국가와 제도를 통해 형성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본다. 이런 이유로 국가와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자본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불완전한 이해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Putnam, 1993).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에이즈와 같은 감염질병의 낙인화를 감소시키는데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는데, 신규 감염질병인 메르스 낙인화 감소에도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된다. 그러나 메르스 낙인화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은 사회자본의 구조적 요인인 네트워크 유형과 그 네트워크를 기반한 인지적 요

인인 신뢰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폐쇄적 특징을 보이는 결속형 사회자본은 낙인화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폭넓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교량형 사회자본의 경우 낙인화를 감소시키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 연구가설과 모델

이 연구는 앞서 논의한 대로 감염질병인 메르스의 위험 증폭으로 초래된 메르스 낙인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험의 증폭이론에 따르면 낙인화를 초래하는 정보 기제로서 미디어 보도의 중요성을 제기했다(Kasperson, *et. al.*, 2001).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 유형과 문화적 편향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도 유형으로 이 연구가 선택한 것은 내러티브 보도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기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러티브를 갖추고 있다(White, 1997).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보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수용자들의 문화적 편향이 조절한다(Jenkins-Smith, 2001). 그리고 집단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제약에 따라 구분되는 위계주의 편향과 평등주의 편향을 자연과 기술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대조적인 특징을 보인다(Dake, 1991). 이는 메르스와 같은 신규 감염 질병에 대한 위험과 낙인화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열과 권위를 중시하는 위계주의 문화적 편향은 메르스 확산이 통제될 수 없는 위험 사안으로 인식하고,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비난하는 등 낙인화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평등주의자는 메르스 감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구성원의 조화를 깨뜨리는 행동으로 간주해 낙인화에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이 내러티브 보도가 개인의 문화적 편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내러티브 메시지는 낙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위계주의가 높을수록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것이다.
- 1-2) 평등주의가 높을수록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이다.

내러티브는 태도와 행위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이러한 내러티브 효과에 주목해서 내러티브 보도가 메르스와 감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내러티브의 설득 기제로 대표적인 개념이 몰입, 동일시 그리고 자아준거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내러티브 보도가 이러한 설득기제를 통해서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낙인화에 대한 내러티브 보도의 인과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2)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메시지 반응은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 2-1)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몰입 반응은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 2-2)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동일시 반응은 매개적 역할을 것이다.
- 2-3)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준거 반응은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에서는 가설 1, 2에서 검증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서 보도 내러티브와 매개 변인으로서 내러티브 반응 그리고 조절변인으로서 문화적 편향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역할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3)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메시지 반응은 매개

적 역할을 할 것이다.

- 3-1) 위계주의와 내러티브 메시지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메시지 반응은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 3-2) 평등주의와 내러티브 메시지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메시지 반응은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낙인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관계를 사회적 수준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사회자본의 중요한 기능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관용을 갖게 하면서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utnam, 2000). 공동체 의식은 에이즈 확산을 감소시켰고(Campbell, *et. al.*, 2002), 비공식적인 조직 참여와 상호호혜성은 에이즈의 낙인 수준을 낮추는(Sivaram, *et. al.*, 2009) 등 사회자본이 질병 낙인화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높은 결속력과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결속형(bonding)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의 폐쇄성을 보이면서 파벌주의, 인종주의, 부패와 같은 부정적 결과도 발생시키기도 한다(Putnam, 200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네트워크 유형과 이에 따른 인지적 요인으로서 신뢰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질병 낙인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세웠다.

연구문제 1) 결속형, 교량형, 그리고 연결형 사회자본의 인지적 구조적 차원에 따라 메시지 반응을 매개로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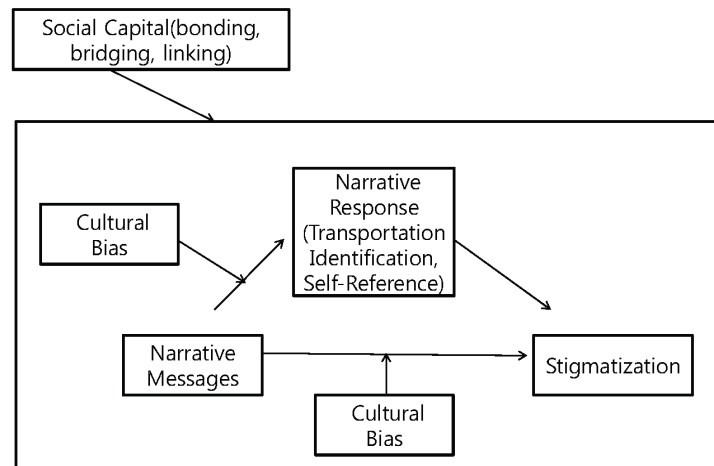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III. 연구 방법과 주요변인의 측정

1. 분석대상

실험은 2016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은 온라인 설문 조사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표본은 성별 및 연령별 할당을 고려해 표집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은 설문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총 428개 설문지가 모아졌다. 실험집단에는 총 215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는데, 성별 구성은 여성 49.8%, 남성 50.2%로 이루어졌다. 연령대는 20대가 22.3%, 30대가 27.0%, 40대가 25.6%, 그리고 50대가 35.2%로 집계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에는 총 214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고, 성별 구성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50%로 이루어졌다. 연령대는 20대가 22.9%, 30대가 26.2%, 40대가 25.7%, 50대가 25.2%로 파악되었다. 수거된 응답지 428건 중 메르스에 감염 경험이 있거나 메르스 감염 지역 거주하고 있는 피험자의 응답지를 제외한 총 312건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 중 실험집단은 총 158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48.1%, 남성 51.9%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대가 22.8%, 30대가 27.8%, 40대가 26.6%, 그리고 50대가 22.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제집단은 총 154명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성이 50.8%, 남성이 49.4%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대가

20.1%, 30대가 26.7%, 40대가 28.5%, 50대가 24.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간 설계로 실시되었다. 실험집단에게는 메르스에 감염된 인물을 중심으로 경로, 증상, 그리고 치료에 이르는 과정이 인과 관계에 맞게 구성된 내러티브 기사를 처치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에게는 의학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메르스 감염 경로, 증상, 그리고 치료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된 기사를 제시하였다.

실험처치에 대한 조작 점검은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대해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대해 개인의 사례를 위주로 작성되었다’,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대해 의학적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조작점검측정치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내러티브 기사에 대한 조작 점검을 묻는 ‘기사의 유형이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와 ‘개인의 사례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의 문항에 응답한 평균이 3.64(SD=.57)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에서는 2.90(SD=0.70)으로 파악되어 두 집단 간의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10.426, p=.000). 반면, 논내러티브의 조

작을 묻는 ‘의학적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의 문항에서 실험집단의 응답 평균은 2.94(SD=.62)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의 응답 평균은 3.32(SD=.60)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5.621$, $p=.000$).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실험 처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1) 내러티브와 통제 보도 메시지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를 힌야드와 크로이터(Hinyard & Kreuter, 2007: 778)가 정리한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을 포함하고 도입, 전개 그리고 결말의 극적인 구조를 갖춘 이야기’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실험 처치용 내러티브 기사를 작성했다. 실험 처치물인 내러티브 기사와 비내러티브 기사의 차이는 등장인물과 메르스 감염이라는 사건의 인과성 유무에 있다. 구체적으로 내러티브 보도는 ① 등장인물을 증동에서 입국한 메르스 감염 보건자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메르스 감염 사실의 인과관계를 제시했다. ② 등장인물의 메르스 감염 증상과 치료 과정을 객관적 기술이 아닌 등장인물의 관점으로 묘사했다. 통제 기사인 비내러티브 기사의 작성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mers.go.kr)에서 제시하는 메르스 정보에 근거했다. 내러티브 기사와 같이 메르스 감염 경로, 증상, 치료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인과관계와 등장인물이 없이 의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만을 전달했다. 내러티브와 통제기사 모두 680여자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2) 문화적 편향

문화적 편향은 데이크(Dake, 1992)가 사용한 20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위계주의는 권위, 질서, 군사력 등의 내용으로, “젊은 세대에게 좀 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남보다 엄격하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개인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능력주의 중시를 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많

이 버는 것은 당연하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평등주의는 부의 평등과 재분배, 권위주의 부정의 개념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국민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사회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운명주의는 운명, 체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남을 돕다가 원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3) 메시지 반응

(1) 몰입

이 연구에서 몰입은 ‘내러티브 세계의 사건을 간접 경험하는 것’(Gerrig, 1993; Green & Brock, 2000)으로 정의했다. 측정은 그린과 블록(Green & Brock, 2000)이 사용한 문항 중 일반적인 몰입과 구체적 상황을 제시한 문항 등을 메르스 상황에 맞게 재구성했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기사가 전달하는 상황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감염자들의 이미지를 머리 속에 그릴 수 있었다.” 등 4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2) 동일시

동일시는 ‘등장인물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적 인지적 과정’(Moyer-Guse & Nabi, 2010)으로 정의했다. 측정 문항은 코헨(Cohen, 2001)이 사용한 10개 문항 중 보도 유형이 지면 기사인 것과 구체적 상황이 메르스 감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재구성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 속의 메르스 감염된 인물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 속의 메르스 감염된 인물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마치 내가 기사 속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등 4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3) 자아준거

자아준거(self-referent)는 번크란트와 운나바(Burnkrant & Unnava, 1995)가 정의한 '개인이 자신의 경험이나 기대를 메시지와 관계 짓는 반응'으로 정의했다. 설문문항은 입아영, 유수, 그리고 최낙환(Lim, *et. al.*, 2014)이 사용한 4개의 문항을 메르스 감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재구성했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메르스 감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내가 겪었던 메르스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등 4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4) 낙인

낙인은 '메르스와 관련된 사람에 붙여지는 부정적 이미지, 감정적 반응 그리고 사회적 행동'(Gregory, *et. al.*, 1995)으로 조작적 정의했다. 측정문항은 칼리크만트와 그의 동료들(Kalichman, *et. al.*, 2004)이 사용한 에이즈 낙인 측정 문항을 메르스 감염으로 대체해서 감정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으로 나누어 총 7개 문항으로 재구성했다. 감정적 차원은 '메르스에 감염된다는 것은 혐오스럽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행동적 차원은 '메르스가 종식되어도,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5) 사회자본

사회자본 구성요소와 측정은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후쿠야마(Fukuyama, 2001)는 사회자본 개념 중 단점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측정 도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정 문항을 구성해야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자본 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신뢰, 규범, 신념, 네트워크, 참여, 협력 등으로 구분된다

(Park, 2009). 이러한 사회자본 요소를 크게 분류하면 구조적 측면에서 네트워크와 인지적 측면에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조적 측면은 네트워크의 폐쇄성, 개방성, 그리고 수직적 특성을 고려해 결속형, 교량형, 그리고 연결형으로 구분된다. 인지적 측면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 네트워크에 배태된 신뢰가 포함된다. 사회자본은 측정을 위한 엄격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측정 문항을 검토하고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항들을 선별해 타당성을 확보하고자했다.

(1) 결속형 사회자본은 '구조적으로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 등 귀속적 성격의 네트워크와 인지적으로 특정하고 두터운 신뢰와 호혜성'으로 규정했다(Lancee, 2010). 네트워크 측정 문항은 란시(Lancee, 2010)가 사용한 6개 중 국내 상황에 적용해 4개 문항으로 재구성했다. 떨어져있는 가족 방문과 초대, 친구의 집 방문과 초대, 이웃과 동료의 집 방문과 초대 등의 빈도를 측정했다. '전혀 방문과 초대를 하지 않는다'에서 '자주 방문하고 초대한다'까지 5점으로 측정했다. 신뢰와 호혜성도 란시(Lancee, 2010)가 사용한 문항을 재구성해 '가족', '친구', '이웃과 동료' 등을 신뢰한다고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는 가족이 있다' 등 4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으로 측정했다.

(2) 교량형 사회자본은 '일반적인 이해에 의해 구성된 네트워크와 일반적인 신뢰'(Szreter & Woolcock, 2004)로 정의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차원의 측정은 이준웅과 그의 동료들(Rhee, *et. al.*, 2005)이 집단 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측정했던 문항들을 친목집단, 종교집단, 취미모임 등 5개 영역으로 재구성해 사용했다. 일반적인 신뢰와 상호 호혜성을 묻는 인지적 차원은 조기숙과 박혜윤(Cho & Park, 2004), 그리고 야마기시

와 야마기시(Yamagishi & Yamagishi, 1994)가 사용한 6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대부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등의 문항을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3) 연결형 사회 자본은 ‘제도적 권력 등과 같이 수직적 네트워크와 이에 배태된 신뢰와 규범 등의 사회적 가치’로 규정했다(Szreter & Woolcock, 2004). 네트워크는 ‘나는 일반적으로 총선, 대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참여하는 편이다’, ‘국가 기관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메일을 쓰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편이다’ 등 4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인지적 차원은 정부를 비롯한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를 측정했는데(Rhee, et. al., 2005), ‘정부’, ‘국회’, ‘검찰과 경찰’, ‘언론’, ‘기업’ 등에 대한 신뢰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신뢰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IV. 분석 결과

1. 주요 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하였다. 문화적 편

향 측정에서 위계주의는 .615, 평등주의 .732로 분석되었다. 크론바흐 알파 값이 .6 이상이면 신뢰도가 적절한 수준(Nunnally, 1978)이라는 주장에 근거해 위계주의 신뢰도가 유효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그 밖의 다른 주요 변인들의 신뢰도 계수가 .7 이상으로 적절한 수준을 보였다.

각 변인을 측정한 문항들을 수렴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수렴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일부 변인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로딩값이 낮게 나왔다. 위계주의 문항들의 로딩값은 .253에서 .607로 나타났고, 평등주의 문항의 로딩값은 .363에서 .821로 분석되었다. 결속형 네트워크 문항의 로딩값은 .191에서 .622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로딩값이 .7을 초과해야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Nunnally & Bernstein, 1994). 따라서 연구에서는 세 개의 변수들의 측정 문항에서 로딩값이 가장 낮은 문항들을 제외해서 분석했다. 낮은 문항들을 제외하니 대부분의 문항들의 로딩값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Simons & Gaher, 2005). 각 변인 간 변별타당도는 <Table 1>에 정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로딩값이 .9 미만으로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했다.

Table 1. Reliabilit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the measuring instruments

	Reliability	M	SD	Hierar- -chy	Egali- -tarian	Bonding Trust	Bonding Network	Bridging Trust	Bridging Network	Linking Trust	Linking Network	Identi- -ficati- -on	Self- -Refer- -ence	Trans- -porta- -tion	Stigma- -tization
Hierarchy	.615	3.40	.51		-.061	.366	.219	.482	.305	.646	-.085	.410	.306	.427	.398
Egalitarian	.732	3.83	.54			.298	.254	.042	-.133	-.357	.102	-.011	.152	-.020	-.228
Bonding trust	.763	3.59	.57				.861	.497	.185	.229	.063	.104	.139	.054	-.005
Bonding network	.797	3.57	.59					.451	.202	.146	.268	.110	.216	.177	-.023
Bridging trust	.900	3.17	.67						.398	.569	.129	.270	.234	.268	.069
Bridging network	.799	2.58	.78							.488	.551	.347	.282	.410	.538
Linking trust	.918	2.46	.84								.139	.301	.153	.319	.392
Linking network	.705	2.75	.77									.188	.171	.239	.349
Identification	.877	3.09	.69										.724	.901	.252
Self-reference	.835	3.11	.68											.807	.174
Transportation	.806	3.21	.62												.292
Stigmatization	.917	2.42	.91												

2.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러티브 메시지의 영향과 문화적 편향의 상호작용

톰슨과 그의 동료들(Tompson, *et al.*, 1990)은 문화를 구성원들의 문화적 편향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공유된 가치와 신념인 문화적 편향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이 갖는 문화적 편향이 모두 문화 유형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편향 측정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지 않고 개인 내에 존재하는 다중 편향으로 간주하고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보도 내러티브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1-1도 보도 내러티브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계주의의 조절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설 1-2의 평등주의 편향의 조절작용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은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러티브 보도를 접한 사람들 중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 사람들(M=2.18, SD=.88)이 낮은 사람들(M=2.56, SD=.92)보다 메르스와 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낙인화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논내러티브 메시지를 접한 수용자들 중에서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 사람들(M=2.47, SD=.92)은 낮은 사람들(M=2.45, SD=.90)보다 메르스와 감염자에 대한 낙인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메르스 위험을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기술한 기사에서 낙인화 태도가 낮았고, 반대로 평등주의 편향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보다 메르스 위험 보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기사에서 낙인화 태도가 낮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평등한 권리를 중요시하고 사회적 제약을 거부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메르스 위험에 대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보다 개인이 겪는 고통을 통해 전달하는 기사를 메르스 낙인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Table 2. Regression results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egalitarian bias

	Stigmatization	
	b	t
Constant	2.462	34.080***
Narrative	-.090	-.890
Egalitarian	.018	.136
Narr*Egal	-.497	-2.679**
R^2	.070	
F	23.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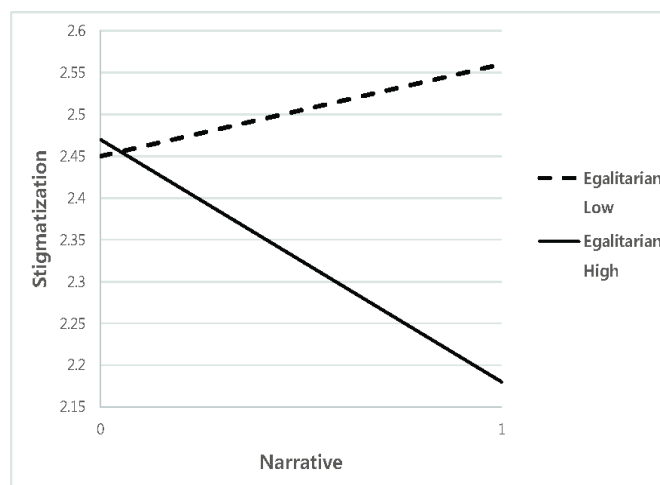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egalitarian bias

3. 낙인화에 대한 내러티브 메시지의 영향력에서 메시지 반응의 매개효과

가설 1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도 내러티브가 내러티브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내러티브 반응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불일치 매개(inconsistent mediation)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검증했다. 불일치 매개 검증(inconsistent mediation)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인 전체 효과의 유의미성을 분석하지 않고,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간의 효과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의 효과, 그리고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분석한다(MacKinnon, et. al., 2007). 이러한 분석 방법은 매개효과 검증에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전체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고려한 분석법이다.

불일치 매개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보도 내러티브가 몰입, 동일시, 자아준거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분석했다. 분석결과 보도 내러티브가 몰입($b=.368, t=4.843$), 동일시($b=.502, t=6.969$), 그리고 자아준거($b=.217, t=3.159$)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했다. 다음으로 몰입, 동일시, 그리고 자아준거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했다.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된 결과 몰입과 동일시 간의 상관관계가 0.91로 높은 것을 분석되었다. 이럴 경우 회귀 분석에서 회귀 계수의 분산이 증가해 계수 추정치가 불안해 해석이 어

려울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측정된 결과 몰입의 분산팽창계수가 3.33, 동일시가 2.68, 자아준거의 2.02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회귀분석한 결과 몰입이 증가할수록 낙인화($b_{몰입}=.347, t_{몰입}=5.25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시가 증가할수록 낙인화가 증가했다($b_{동일시}=.331, t_{동일시}=4.514$). 자아준거 반응도 증가할수록 낙인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_{자아준거}=.271, t_{자아준거}=3.285$). 그러나 몰입 동일시 그리고 자아준거가 각각 낙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서 내러티브가 낙인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몰입과 동일시($b_{몰입}=-.219, t_{몰입}=-2.131/b_{동일시}=-.280, t_{동일시}=-2.626$)만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자아준거($b_{자아준거}=-.139, t_{자아준거}=-1.350$)에서는 유의미하지 못했다. 따라서 동일시와 몰입만이 보도 내러티브와 낙인의 관계에서 불일치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러티브 보도는 표면적으로 낙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용자들에게 보도에 메르스 감염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게 하는 몰입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감염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감하는 동일시를 이끌어내면서 낙인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몰입과 동일시 등의 매개 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보도 내러티브와 낙인화의 인과 관계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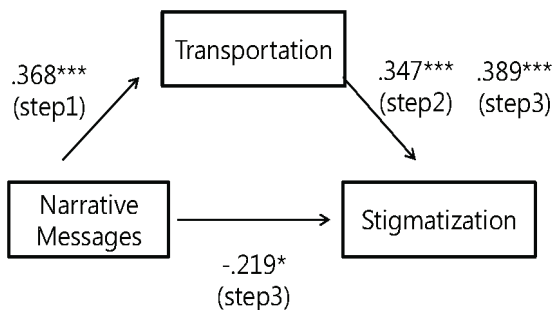


Figure 3. Regression results for mediating effect of transpor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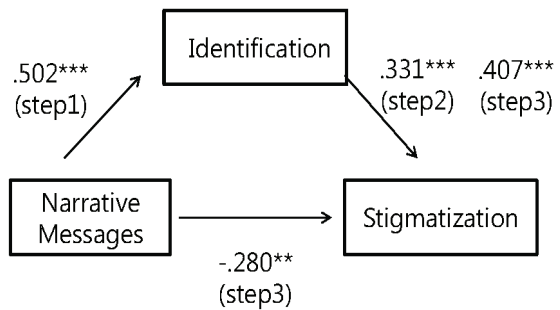


Figure 4. Regression results for mediating effect of identification

4. 메시지 반응을 매개로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

가설 3은 가설 1과 가설 2의 결과에 근거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이는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에 평등주의의 조절작용이 몰입과 동일시의 매개변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낙인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뮐러와 그의 동료들(Muller, *et. al.*, 2005)이 제시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 그리고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해야하고, 특히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절대값이 전체효과에서보다 직접효과에서 적게 나타나야 비로소 매개된 조절 효과가 검증된다.

매개된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한 첫 단계에서 내러티브와 평등주의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의

계수는 .497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 사람들이 인물과 사건 중심의 내러티브가 있는 기사를 통해 낙인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는 내러티브 보도를 접한 수용자들의 평등주의 편향이 높을수록 동일시가 증가하는지를 분석했는데, 분석한 결과 계수가 .255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보도 내러티브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 동일시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계수가 .469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내러티브와 평등주의의 상호작용 계수가 -.496로 분석되어, 직접효과에서 나타난 -.497보다 절대값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매개된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인물과 사건 중심의 내러티브 보도를 통해 인물과의 동일시를 증가시키면서 낙인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낙인화를 감정과 행동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한 경우에도 <Table 3>과 같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Table 3. Regression results for mediated moderation effects

	Stigmatization		Identification		Stigmatization	
	b	t	b	t	b	t
Constant	2.462	34.080***	-.254	-4.976***	2.578	36.157***
Narrative	-.090	-.890	.506	7.043***	-.313	-3.012**
Egalitarian	.018	.136	-.072	-.774	-.013	-.094
Narr * Egal	-.497	-2.679**	.255	1.946*	-.496	-2.511*
Identification					.469	5.990***
Ident * Egal					-.196	-1.301
	Stigmatization (Emotion)		Identification		Stigmatization (Emotion)	
	b	t	b	t	b	t
Constant	2.358	35.291***	-.256	-5.755***	2.473	37.300***
Narrative	-.091	-.972	.498	7.972***	-.302	-3.135**
Egalitarian	-.162	1.350	-.072	-.924	-.221	-1.846
Narr * Egal	-.378	-2.215*	.264	2.331*	-.335	-1.936
Identification					.478	6.5390***
Ident * Egal					-.353	-2.709**
	Stigmatization (Behavior)		Identification		Stigmatization (Behavior)	
	b	t	b	t	b	t
Constant	2.559	35.714***	-.256	-5.755***	2.671	37.175***
Narrative	-.018	-.177	.498	7.972***	-.230	-2.204**
Egalitarian	-.042	-.325	-.074	-.924	-.059	-.459
Narr * Egal	-.363	-1.984*	.264	2.331*	-.391	-2.082*
Identification					.456	5.756***
Ident * Egal					-.193	-1.368

5. 사회자본의 고저에 따라 메시지 반응을 매개로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제 1에서는 사회자본 유형에 따라 메시지 반응을 매개로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낙인화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량형 신뢰와 네트워크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인 교량형 신뢰가 높을수록 낙인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량형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낙인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량형 네트워크가 강해질수록 느슨한 시민적 연계가 결속력이 강한 네트워크의 속성을 갖게 되면서 메르스 감염 확산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등의 폐쇄성을 보이면서 낙인화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형 신뢰와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낙인화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신뢰가 개인과 사회단체 신뢰와는 관련성이 없다(Newton, 1999)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한국의 정치적 상황

이 반영된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보다 낮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하위권으로 평가된 상황에서(Yonhapnews, 2015. 8. 9), 정부와 입법 사법 경제 제도와 강한 수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높게 신뢰를 형성한 사람들의 경우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이 낙인화를 증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지적한대로 사회자본이 반드시 긍정적 측면에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지지한다(Putnam, 2000).

다음 단계로 결속형, 교량형, 그리고 연결형 사회자본의 네트워크와 신뢰의 고저에 따라 메시지 반응을 매개로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6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의 평균을 분석해 고저 집단으로 나누어, 메시지 반응을 매개로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된 조절효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결속형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 동일시를 매개로 내러티브 보도와 평등주의의 상호작용이 낙인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속형 사회자본의 신뢰는 혈연과 지연 간의 관계에서 특정한 사람들과의 두터운 신뢰로 정의된다. 혈연과 지연을 통해 끈끈한 유대관계

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social capital

	Stigmatization	
	b	t
Constant	1.434	4.355***
Bonding Trust	.004	.037
Bonding Network	-.104	-1.004
Bridging Trust	-.321	-3.805***
Bridging Network	.418	6.028***
Linking Trust	.346	5.384**
Linking Network	.158	2.450*
<i>F</i>	22.566***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mediated moderation effects(low bonding trust)

	Stigmatization		Identification		Stigmatization	
	b	t	b	t	b	t
Constant	2.493	24.588***	-.261	-3.536***	2.591	25.678***
Narrative	-.082	-.602	.461	4.656***	-.247	-1.776
Egalitarian	-.059	-.358	-.031	-.256	-.163	-.972
Narr*Egal	-.486	-2.125*	.116	.700	-.332	-1.392
Identification					.396	3.676***
Ident*Egal					-.386	-2.043*

로 맺어진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지만 위협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인물과 사건 중심의 메르스 기사를 통해 기사 속의 인물과 동일시를 경험하면서 낙인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신종 감염 질환인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수용자들의 공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캐스펠슨과 그의 동료들(Kasperson, *et. al.*, 2001)이 제시한 낙인화의 단계를 밟아나갔다. 특히 메르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완치된 이웃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메르스 낙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 연구의 목적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 질병의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해서 낙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 낙인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탐색하고자했다.

연구가 관심을 가진 것은 낙인화에 있어서 보도의 영향력이다. 낙인화는 집중적인 미디어 보도를 통해 형성된다. 그리고 메르스 감염과 같은 위협 사건 보도에는 기사마다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몰입, 동일시 그리고 자아준거 등 다양한 반응을 통해 태도와 행위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내러티브 효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내러티브 보도가 태도와 행위 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내러티브 반응을 매개로 형성되는지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내러티브 보도를 통해 수용자들은 내러티브에 몰입하거나 인물들과 동일시를 이끌어내면서 낙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디어 보도의 영향력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용자들의 위협을 인식하고 자연과 기술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게 하는 문화적 편향은 미디어의 영향력과 상호작용한다. 이 연구에서

도 문화적 편향이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주의 편향이 높을수록 인물과 사건 중심의 내러티브 보도를 접한 수용자의 낙인화 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러티브 반응을 매개로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평등주의의 조절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수용자들은 기사 속 인물과의 동일시를 높게 하면서 낙인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해볼 수 있었다. 사회자본은 구성원간의 관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데, 폐쇄적인 네트워크와 수직적 네트워크로 인해 내집단 중심주의나 권위적 의사소통이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도 사회자본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다.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높을수록 낙인화는 감소하지만, 수평적 네트워크의 결속력이 강하거나 제도와외의 수직적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메르스와 같은 감염 질병 낙인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감염 질병의 낙인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먼저 위협을 보도하는 저널리스트들이 인물과 사건 중심의 내러티브 기사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로 점철된 위협보도보다는 인물 중심의 내러티브 보도를 통해 수용자들이 감염자와의 동일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감염자에 대한 비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도 유형에 선행해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평등주의적 성향과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러티브 보도가 생산되어도 평등주의적 성향을 통해 등장인물과 동일시를 형성하지 못하면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등주의 성향과 교량형 사회자본이 개인 수준에서 측

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낙인이라는 사회문제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준에서 근원적인 예방책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메시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위협의 사회 증폭 분석틀에서 낙인을 초래하는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에서 다양한 변인의 영향력과 그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했다. 미디어의 내러티브 보도와 낙인화 간의 관계에서 내러티브 반응의 매개 효과를 분석했고, 이 매개효과와 문화 성향과 메시지 상호작용이 낙인에 미치는 효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그리고 사회자본의 다양한 층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했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위협의 사회 증폭 분석 틀이 제한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성향과 사회자본 변인까지 추가해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킨 탐색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 사회에서 위협의 사회 증폭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탐색적인 연구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사회자본 측정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폐쇄성 그리고 수직적 특징을 포괄하고 네트워크에 배태된 신뢰까지 측정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의 측정도구를 재구성하거나, 내러티브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몰입, 동일시, 그리고 자아준거 등 미디어 효과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측정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연구 방법의 엄밀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다 정제된 측정도구를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디어의 효과 부분에서도 메르스와 같은 신규 질병에 대한 보도량이 만성 질병보다 다수를 차지한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할 때, 후속 연구를 통해 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낙인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는 것도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38236).

References

- Alonzo, A. A. and N. R. Reynolds. 1995. Stigma, HIV and AIDS: An Exploration and Elaboration of a Stigma Trajectory. *Social Science & Medicine*. 41(3): 303-315.
- Andsager, J. L., V. Bemker, H. L. Choi, and V. Torwel. 2006. Perceived Similarity of Exemplar Traits and Behavior: Effects on Message Evalu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3(1): 3-18.
- Appel, M. and T. Richter. 2007. Persuasive Effects of Fictional Narratives Increase over Time. *Media Psychology*. 10(1): 113-134.
- Baumeister, R. F., K. D. Vohs, C. N. DeWall, and L. Zhang. 2007. How Emotion Shapes Behavior: Feedback, Anticipation, and Reflection, rather than Direct Caus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2): 167-203.
- Burnkrant, R. E. and H. R. Unnava. 1995. Effects of Self-Referencing on Persua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1): 17-26.
- Busselle, R. and H. Bilandzic. 2009. Measuring Narrative Engagement. *Media Psychology*. 12(4): 321-347.
- Campbell, C., B. Williams, and D. Gilgen. 2002. Is Social Capital a Useful Conceptual Tool for Exploring Community Level Influences on HIV Infection? An Exploratory Case Study from South Africa. *AIDS Care*. 14(1): 41-54.
- Chandrasekaran, P., G. Dallabetta, V. Loo, S. Rao, H. Gayle, and A. Alexander. 2006. Containing HIV/AIDS in India: The Unfinished Agenda.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6(8): 508-521.
- Chiu, J., J. Grobelaar, K. Sikkema, A. Vandormoel, N. Bomela, and T. Kershaw. 2008. HIV-related Stigma and Social Capital in South Africa. *AIDS Education & Prevention*. 20(6): 519-530.
- Cho, Ki Suk and Hye Yun Park. 2004. Measurement of Trust:

- A Gap between Experiment and Survey. *Hankook Jeongchi Hakheobo*. 38(2): 95-116.
- Cohen, J. 2001. Defining Identification: A Theoretical Look at the Identification of Audiences with Media Character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4(3): 245-264.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ake, K. 1991. Orienting Dispositions in the Perception of Risk: an Analysis of Contemporary Worldviews and Cultural Bias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2(1): 61-82.
- Dake, K. 1992. Myths of Nature: Cultur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21-37.
- De Graaf, A., H. Hoeken, J. Sanders, and H. Beentjes. 2009. The Role of Dimensions of Narrative Engagement in Narrative Persuasion. *Communications: Th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34(4): 385-405.
- De Graaf, A., H. Hoeken, J. Sanders, and J. W. Beentjes. 2012. Identification as a Mechanism of Narrative Persuasion. *Communication Research*. 39(6): 802-823.
- Diekman, A. B., W. L. Gardner, and M. McDonald. 2000. Love Means Never Having to Be Careful: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Romance Novels and Safe Sex Behavio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2): 179-188.
- Docdocdoc. 2015. 05. 20.
- Doctorsnews. 2015. 11. 17.
- Douglas, M. 1985. *Risk Acceptability According to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Penguin.
- Dunlop, S., M. Wakefield, and Y. Kashima. 2008. Can You Feel It? Negative Emotion, Risk, and Narrative in Health Communication. *Media Psychology*. 11(1): 52-75.
- Fukuyama, F. 2001.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2(1): 7-20.
- Gerrig, R. J. 1993. *Experiencing Narrative World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Golding, D., S. Krinsky, and A. Plough. 1992. Evaluating Risk Communication: Narrative vs. Technical Presentations of Information about Radon. *Risk Analysis*. 12(1): 27-35.
- Green, M. C. 2004. Transportation into Narrative Worlds: The Role of Prior Knowledge and Perceived Realism. *Discourse Processes*. 38(2): 247-266.
- Green, M. C. 2006. Narratives and Cancer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6(s1): S163-S183.
- Green, M. C. and T. C. Brock. 2000.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 the Persuasiveness of Public Narra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01.
- Gregory, R., J. Flynn, and P. Slovic. 1995. Macroscopic: Technological Stigma. *American Scientist*. 83(3): 220-223.
- Hinyard, L. J. and M. W. Kreuter. 2007. Using Narrative Communication as a Tool for Health Behavior Change: A Conceptual,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Health Education & Behavior*. 34: 777-792.
- Ismail, S. and C. Grootaert. 2000. Deny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In Dasgupta P. and I. Seragedin(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40-58. Washington, DC : World Bank.
- Jenkins-Smith, H. 2001. Modeling Stigma: An Empirical Analysis of Nuclear Waste Images of Nevada. In Flynn, J., P. Slovic, and H. Kunreuther(eds.). *Risk Media and Stigma*. 107-132. London: Earthscan.
- Joffe, H. and G. Haarhoff. 2002. Representations of Far-flung Illnesses: The Case of Ebola in Britain. *Social Science & Medicine*. 54(6): 955-969.
- JTBC. 2015. 06. 26.
- Kalichman, S. C., L. C. Simbayi, S. Jooste, Y. Toefy, D. Cain, C. Cherry, and A. Kagee. 2005. Development of a Brief Scale to Measure AIDS-related Stigma in South Africa. *AIDS and Behavior*. 9(2): 135-143.
- Kasperson, R. E. 1992.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Progress in Developing an Integrative Framework. In Krinsky, S. and D. Golding(eds.). *Social Theories of Risk*. 153-178. Westport, CT: Praeger.
- Kasperson, R. E., N. Jhaveri, and J. X. Kasperson. 2001. Stigma and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Toward a Framework of Analysis. In Flynn, J., P. Slovic, and H. Kunreuther(eds.). *Risk Media and Stigma*. 9-27. London: Earthscan.
- Kasperson, R. E., O. Renn, P. Slovic, H. S. Brown, J. Emel, R. Goble, J. X. Kasperson, and S. Ratick. 1988.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 Conceptual Framework. *Risk Analysis*. 8(2): 177-187.
- KBS. 2015. 11. 17.

- Kim, Yung Wook. 2014. *Risk Communication*. Seoul: Communicationbooks.
- Lancee, B. 2010. The Economic Returns of Immigrants'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The Case of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4(1): 202-226.
- Lim, Ah Young, Liuxiu, and Nak Hwan Choi. 2014. Physical Elements Constituting Advertisement, Visualization, Model's Role Playing, Positive Affect, Self-Expressive Need Fulfillment, Self-Referential Narrativ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38(2): 95-116.
- Link, B. G. and J. C. Phelan.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 MacKinnon, D. P., A. J. Fairchild, and M. S. Fritz. 2007. Mediation Analysi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593-614.
- Mar, R. A. and K. Oatley. 2008. The Function of Fiction is the Abstraction and Simulation of Social Experi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3): 173-192.
- Moyer-Gusé, E. and R. L. Nabi. 2010. Explaining the Effects of Narrative in an Entertainment Television Program: Overcoming Resistance to Persuas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6(1): 26-52.
- Muller, D., C. M. Judd, and V. Y. Yzebyt.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McGraw-Hill.
- Nunnally, J. C. and I. H. Bernstein. 1994. *Psychological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Ogden, J. and L. Nyblade. 2005. *Common at Its Core: HIV-related Stigma across Context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 Park, Hee Bong. 2009. *Social Capital*. Seoul: Jomyung.
- Parker, R. and P. Aggleton. 2003. HIV and AIDS-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a Conceptual Framework and Implications for Ac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57(1): 13-24.
- Prentice, D. A. and R. J. Gerrig. 1999. Exploring the Boundary between Fiction and Reality. In Chaiken, S. and Y. Trope. (eds.). *Dual-proce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529-546. New York: Guilford.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Civic America*.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 Rhee, June Woong, Eun Mee Kim, and Tae Joon Moon. 2005. The Communicative Foundation of Social Capital in Korea : Impacts of Media Uses on Trust, Civic Engagement, and Socio-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9(3): 234-261.
- Simons, J. S. and R. M. Gaher. 2005. The Distress Toler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Motivation and Emotion*. 29(2): 83-102.
- Sivaram, S., C. Zelaya, A. K. Srikrishnan, C. Latkin, V. F. Go, S. Solomon, and D. Celentano. 2009. Associations between Social Capital and HIV Stigma in Chennai, India: Considerations for Prevention Intervention Design. *AIDS Education and Prevention*. 21(3): 233-250.
- Slater, M. D. and D. Rouner. 2002. Entertainment-Education and Elaboration Likelihood: Understanding the Processing of Narrative Persuasion. *Communication Theory*. 12(2): 173-191.
- Szreter, S. and M. Woolcock. 2004. Health by Association? Social Capital,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3(4): 650-667.
- Tal-Or, N. and J. Cohen. 2010. Understanding Audience Involvement: Conceptualizing and Manipulating Identification and Transportation. *Poetics*. 38(4): 402-418.
- Thompson, M. R. Ellis, and A. Wildavsky. 1990. *Cultural Theory*. Boulder, CO: Westview Press.
- Van Deth, J. W. 2008. Measuring Social Capital. In Van Deth, J. W. and G. Wolleb (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150-17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P. 1997. Death, Disruption and the Moral Order: The Narrative Impulse in Mass-media "Hard News" Reporting. In Christie, F. and J. Martin(eds.). *Genre and Intitutions : Social Processes in the Workplace and School*. 101-133. London and Washington, DC: Cassell.
- Yamagishi, T. and M. Yamagishi.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
- Yonhapnews. 2015. 08. 09.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김영욱. 2014. 위험 커뮤니케이션.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박희봉. 2009. 사회자본. 서울: 조명문화사.
연합뉴스. 2015. '10명중 7명 정부 불신' OECD 보고서에 "반성
해야". 2015년 8월 9일자.
의협신문. 2015. 메르스의 역습, 예상 밖 확산 당혹. 2015년
11월 17일자.
이준웅, 김은미, 문태준. 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한국언론학보. 49(3): 234-261.
임아영, 유수, 최낙환. 2014. 제품광고에서 자아준거적 내러티
브와 긍정감정을 촉진하는 요인과 제품평가. 산업경제

연구. 27(6): 2863-2888.

조기숙, 박혜윤. 2004. 신뢰의 측정. 한국정치학회보. 38(2):
95-116.

청년 의사. 2016. 메르스 관련되면 차별하는 사회가 사태 키웠
다. 2016년 5월 20일자.

JTBC. 2015. '음성' 판정 받았지만, '메르스 전파자 낙인' 이중
고. 2015년 6월 26일자.

KBS. 2015. 메르스 피해는 진행 중, 보상은 '막막' 오명은 '여
전'. 2015년 11월 17일자.

Received: Dec. 2, 2016 / Revised: Jan. 9, 2017 / Accepted: Jan. 19, 2017

보도 내러티브와 문화적 편향 그리고 사회자본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

– 메르스(MERS) 사태를 중심으로 한 분석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보도 내러티브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매개하는 변인들을 탐색했다. 연구 결과 개인의 문화적 편향은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러티브 메시지를 접한 수용자들 중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 수용자들일수록 낙인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도 내러티브와 낙인화의 관계를 몰입과 동일시 등 메시지 반응이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 내러티브와 문화적 편향의 상호작용이 메시지 반응의 매개를 통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보도 내러티브와 평등주의의 상호작용이 동일시의 매개를 통해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인으로서 결속형, 교량형, 연결형 사회자본을 구조적, 인지적 유형으로 분류해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인 교량형 인지적 사회자본이 낙인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낙인화, 메르스, 내러티브, 문화적 편향, 사회자본

Profiles **Yung Wook Kim** : He received his Ph.D from University of Florida (1999). He is a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where he teaches crisis management, risk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His current research focuses on the role of communication and culture in the context of risk, health, crises and conflicts. He taught at Illinois State University prior to the current position. He also was a Fulbright Exchange Professor at Program on Negotiation at Harvard Law School and a visiting professor at Gent University of Belgium and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of Singapore(kimyw@ewha.ac.kr).

Seung Kyung Ham : She is a doctoral candidate of Communication and Media at Ewha Womans University(hamseungkyung@gmail.com).

<Appendix>

A: 비내러티브 보도

메르스(MERS)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이다. 2012년 4월, 최초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15년 6월 5일까지 25개국에서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중동 이외에 터키, 영국, 말레이시아 등 15개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 환자가 중증 급성하기도질환(폐렴)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지만,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주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다.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구토, 복통, 설사 등을 보인다. 합병증으로 호흡부전, 폐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있으며 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신부전 동반 사례가 사스 보다 높게 나타난다. 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메르스 감염이 높고 예후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 검사 소견으로는 백혈구감소증, 림프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이며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다. 모든 환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역과 연관되었고, 가족 간 전파와 의료기관에서의 제한적 전파로 인한 유행이 보고되었다. 정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었고 사람 간 전염은 대부분 병원 내 감염과 가족 간 감염이다. 개인 간 감염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치치/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이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고 치료는 증상애 따른 대증 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B: 내러티브 보도

2015년 5월 20일 중동에서 귀국한 남성이 메르스(MERS) 첫 환자로 확진된 뒤 대한민국이 메르스 공포에 떨어다. 확진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에 환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해 격리된 인원이 1만6천여 명에 달했다. 메르스 확산 속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배에 육박했고 한국은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속수무책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겪은 고통은 메르스 공포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부부가 모두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K씨 부부. 남편 K씨가 맹장 수술로 입원한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남편을 간호하던 K씨의 부인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원한 병원의 의료진이 메르스 환자가 있던 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공포에 떨어다. 40%에 달한다는 치사율은 이들 부부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육체적 고통도 참기 힘든 수준이었다. 남편은 수술한 직후라서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평소 면역력이 약했던 부인도 각혈을 하는 등 심각한 폐렴 증세를 보였다. K씨 부부는 백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치료법도 없는 메르스와 고독한 사투를 벌였다. 치료를 받던 K씨 부부는 의료진들에게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으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심지어 부인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기까지 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살아서 병실을 나갈 수 없다는 공포가 이들 부부를 괴롭혔다. 치료 시작 일주일만 지난 후 남편은 호흡곤란과 계속되는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부인은 의식을 잃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이들 부부의 시신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장례절차 없이 24시간 이내 화장되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가족에게 돌아갔다.